

현장르포

서부터미널 앞 지하차도 개통, 내년 교통정체 풀린다



서부터미널 앞 지하차도 조감도

서울시 790억 들여 4년여만에 준공 예정
현대아산 첫 진출작, 안전·결실 공사 다짐
김포~안양 남부순환도로간...시원한 교통소통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록의 5월, 그동안 미뤄왔던 르포 기사를 쓰기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35~5번지 서부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송득범)가 시행하는 이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남부순환로 서부터미널 앞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여 낙후된

서남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중 준공을 목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 공사는 도로 구조개선으로 본선은 총길이 1.35km, 폭 38.25m 4차선 도로 1.075m에 달하며 이와 병행 BOX 740m, U type 335m의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현재 50% 공정을 손조로이 실현하고 있는 이 공사는 지난 2004년 1월 양천구 교통개선 종합계획이 수립, 2007년 12월 공사실시계획이 완료되어 2008년 3월에 역사적인 시설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그해 8월에 교통처리계획이 승인 됐고, 2009년 2월 지하차도 연장 투자 심사가 완료로 보았으며, 같은 해 9월 3일 지하차도가 시설공사가 착수 되어 10월 6일 변경설계 본심의와 계약을 완료했다. 사업비 790억원이 들어갈 이 공사는 흙막이 207,960㎡, 흙쌓기 21,276㎡, 복공판 20,707㎡, H-PILE 1,732본, L형 옹벽 112m, 우수관 2,072m, 상수관 1,021m, 기타 조정, 건축 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한 주요 자재로는 강재가 9,656톤, 레미콘이 51,107㎡, 철근 7,865톤, 아스콘 27,915톤, 시멘트 30,938포가 소요된다.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강병탁 과장이 일선 감독관으로 박상철 감독, 동일기술공사 갈리단장 정이준씨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공사인 현대아산 현장소장 김상봉씨도 서울시공사에 처음 진출한 회사라면서 서남권 지역의 명물이 될 지하도 건설사업을 안전하고 견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구슬 땀을 흘리고 있었다.

중양건설도 함께 참여했다. 이 사업이 끝나는 2012년 11월,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김포, 일산에서 안양, 시흥 방향으로 진행되는 차량들은 그동안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해소되어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필 이명우)

한국 내 보쉬, 작년 매출 2조 2천억 원 기록

글로벌 R&D 투자 비용 45% 친환경기술에 활용

자동차 및 산업기술, 소비재 및 빌딩 기술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보쉬(Bosch) 그룹이 회계연도 2011년의 첫 분기에서 15%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약 285,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쉬 그룹은 2010년의 경우 2009년도 대비 24% 증가한 약 72조 5천억 원(473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설립 이래 125년 역사를 거슬러 연간 최대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아태지역의 경우, 보쉬 그룹은 16조 8천억 원(11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며 43%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매출의 23%를 차

지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쉬는 2015년까지 30%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2년 간 2013년까지 아태지역 시장에 3조 원(20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내 보쉬는 2009년 대비 21% 성장한 2조 2천억 원의 2010년 매출을 기록했다. 2010년 보쉬는 세 가지 산업 분야인 자동차 기술, 산업 기술, 소비재 및 빌딩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자동차 기술 부분의 경우, 2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산업 기술은 40%, 소비재 및 빌딩 기술 분야에서는 약 10%의 성장세를 기록했

다.

한국로버트보쉬 헤르만 캐스장(사장)은 “로버트 보쉬의 비전은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제품 품질, 그리고 사회 공헌에 대한 자사의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며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과 같은 친환경 자원 절약 솔루션, Start/Stop 시스템, 광전지 시스템 및 열 기술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 시장 내에서의 보쉬의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 및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11년, 자동차 기술 산업 분야는 클린 디젤, Start/Stop 시스템 그리고 안전 운전 기술과 같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구동 및 제



어 기술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보쉬 랙스로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보쉬의 전동공구사업부에서는 고객 사랑 브랜드 대상을 수여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의 전동 공구 분야의 리더로서, 보쉬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더욱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려운 이웃 위한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엠, 부평본사에서 전국 35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전달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송영길 인천시장, 탈렌트 최수중, 마이크 아카몬 사장.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임직원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하 한마음재단)’이 지난 24일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차량과 시설에 차량을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엠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을 비롯, 송영길 인천시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사회 최수중(탈렌트) 이사장과 수혜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쉼보레 스파크(Chevrolet Spark) 33대와 다마스(Damas) 2대 등 총 35대의 차량을 전달했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차량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지 일선에 계신분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임직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한국지엠과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의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한국지엠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선 문화가 지역 사회복지 발전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어려운 주위 이웃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민의 복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와 함께 차량기증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고 총 700여개의 전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 가운데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유무 ▲복지대상 인원 수 ▲과거 타 기관으로부터의 차량 기증받은 여부 ▲지역 교통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여 전달했다.

기차여행 페이스북 정보 ‘좋아요!’

코레일, 이달말까지 기차여행권 제공이벤트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코레일 기차여행’ 페이스북을 신설하고 이달 말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이스북 방문객들은 기차여행 가볼만한 곳, 여행자 tip, 주변 관광 정보, 기차여행 후기, 여행풍경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코레일은 ‘코레일 기차여행’ 페이스북을 방문해 답변락에 축하 메시지를 남겨 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차여행 무료이용권 14매와 2011년 ‘책 읽은 코레일’ 이벤트 선정도

서 20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기차여행 무료 이용권은 내달 출시예정인 ‘와인&시네마 트레인’(5명/1인 2매)과 코레일 대표 관광여행 운영차인 ‘통통통 뮤직트레인’(2명/1인 2매)이다. 이벤트 응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기차여행’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코레일 기차여행’ 페이스북은 유용한 기차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열린 대화의



창으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됐다”며, “앞으로 더 유익하고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신문 | 1988년 10월 17일 창간

1988년 4월 20일 등록번호 다-520호(週刊)

회장·발행인/박영규 편집인/진영성 주필/이명우 편집국장/양노홍 인쇄인/김준배

140-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2 대표전화 (02)-792-9252 FAX (02)-796-8296

편집국 (02)792-9252

관광팀 (02)792-9252

교통팀 (02)792-9254

광고접수 (02)792-9255

건설팀 (02)792-9253

구독신청 (02)792-9252

THE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EWS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

빛물을 모아 공정을 움직이고 물로 도시전체를 밝힙니다.
 삶의 터전인 논밭도 맑아서 척척 가꿔주고,
 기름없어도 자동차를 쉼쉼 달리게 하는 똑똑한 물!
 물은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 K-water가 만들어 갑니다.